

되고, 일생(成佛에서 涅槃까지)에 걸쳐 설법한 것은 교문(敎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佛心)이요, 교는 부처님의 설법(佛語)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선가귀감》의 선교문(禪敎門)에 보면 선과 교의 근원은 세존이며 선과 교를 나누어 전한 이는 가섭(迦葉)과 아난(阿難)이라 했습니다. 무언(無言)으로서 무언에 이르러는 것이 '선'이며, 유언(有言)으로서 무언에 이르러는 것이 '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사교입선(捨敎入禪)을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애집입니다. 일본 황실의 황태자가 사발염의하고 후지산 초암에서 남의를 걸치고 앉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영국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하고 일거수일투족 교육을 통해 황실 예절을 익힌 황태자가 스님이 된다면 아마 일본의 전국인과 세계인이 존경하는 분이 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와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황실에서 받은 문무를 겸비한 교육을 바탕으로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역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음을 상고하고, 참선을 위해 교학을 버린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일부 동경 명일사에서 30여년간 16만여명의 재일동포를 교화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스님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위엄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해요. 일본 불교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고



△법인스님(오른쪽 끝)은 수시로 삼각 스님들에게 '신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카운셀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하고, 조동종은 목조선을 합니다. 일본의 불교는 대체로 교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마자와(駒澤)대학을 운영하는 조동종은 본사가 영평사와 총지사인데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법화종 계열은 신도가 30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한국불교는 활구선(活句禪)이며, 일본불교는 형식선(形式禪)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아난과 교만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 나라의 불교를 너무 쉽게 갈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한국 스님들은 왜 절에서 동동이 들고 싸우냐'고 이상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성한 도인이 많다는 한국에서

있다는 '불립문자 경성성불(不立文字 性成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후 45년간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법하신 가르침은 그저 조용하게 앉아 지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여법하게 된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은 각자가 행(行)·주(住)·좌(坐)·요(臥)·어(語)·묵(默)·동(動)·정(靜)의 일상생활에서 노력하여 따를 수 있는 것 만큼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다보면 입시생들 입시생 나름대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불의 길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근본되는 교리의 골격으로 삼학(三學)이 있습니다. 계(戒)·정(定)·혜(慧)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삼학은 불교를 배우 도를 이루려는 사람이 반드시 닦아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늘 성찰하고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계, 마음의 잡념 물결이 고요히 잠들고 번뇌의 거친 파도가 침잠되어 잃어버린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도록 하는 정, 계를 지켜 고요함의 울타리를 두르고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참된 슬기가 생겨나게 하는 혜, 부처님의 절대자유하고 평등무애한 세계로 나아가는 바른 방편은 이것을 빼고나면 없습니다.

다시말해 경·율·론 삼장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계·정·혜 삼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가지 경과 만가지 이론을 모조리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밥을 먹는 행위 즉 실천이 없으면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완성이 곧 사회 국가 나라

“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웃위해 봉사하는 참다운 삶 사세요 ”

가 중생계의 완성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의 서원을 들어주기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지켜보고 있으니, 자신 있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골목로 독자와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여 정사를 올바르게 관할할 수 있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자비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불자님들은 60세까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 후 20년 동안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자세로 불교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은 통일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당당하고 정의롭게 거처있어 대처해야 합니다. 순간의 인기나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 서둘러서도 안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해 사심없이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또 스님들은 좀더 많은 사회활동을 해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20년 후를 생각해서 조계사를 정비하고 총무원 청사를 20층 규모의 고층건물로 새로 지어, 한국불교의 포교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대공스님

“견공스님, 견공스님 없습니까?”
“아니, 왜 견공?”
“견공? 견공이러니?”
“비구계 받는 자리에 견공(犬公)이 왜 있어?”

“누가 지었는지 법명 한번 요상하게 지어 놓았네”
모두가 킁킁거리며 술렁이고 있었다. 승의사 스님께서 한참을 그렇게 에타게 찾았건만 견공(?)스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착오가 있어서 대공스님이 견공스님으로 둔갑한 것임을. 교육기간 중에는 부르는 순서가 있으므로 순번을 따져 보니 분명 대공스님을 호명하는 것만이 분명했다. 대공스님 순번다음에 나인데 대공스님은 부르지 않고 나를 호명하는 것만 봐도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출가후 사년동안의 자비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구계법에 불명(佛名)을 적는 사무직원의 실수로 큰 대(大) 옆에 실수로 접 하나를 더 찍어 놓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정작 나를 웃긴 건 잘못된 불명 때문이 아니라 분명 자신의 법명이 잘못 호명되고 있음을 뻔히 알고도 그저 무덤

쉽없이 절하며 사분정근 지금은 어디서 수행할까

덤히 두 눈을 감은 채 가부좌를 틀고 끝내 의면해 버리는 대공스님의 표정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타함을 않는 성품의 대공스님이었으니 어쩌면 대답없이 초연해 버리는 그의 모습이 담겼을지도 모른다.

대공스님과 나는 사미계 도반이요, 비구계 도반이다. 속담이 나오다 대 여섯살 위였으므로 형처럼 대렸으나 대공스님은 이제 같이 수행하는 길의 첫걸음에 섰으니 그저 허물없는 친구처럼 지내자며 오히려 깎듯이 대해 주곤 했다. 그러나 내가 대공스님과 처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대공스님은 사미계를 받은 후 기도와 만행으로 수행을 하였고 나는 바로 강원예 입방하였으니 서로 친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겨우 안면만 뜬 사이였을 뿐이었다. 그러다 치문반해제할 만행 때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중이던 대공스님을 만났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해 질 수 있었으니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었다.

보리암에서 의기투합한 우리는 방학기간 내내 보공을 참배하며 만행을 다녔다. 비록 보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으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서로가 격려하며 이제 각자의 길에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며 기억없이 헤어진 후 서로를 잊고 살았다.

그리고 삼, 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연히 보공 참배길에 사자산 법흥사에서 대공스님을 만났다. 예고 없는 만남이라 더욱 기쁜 법.

우리들은 그 동안의 공부이야기에 밤 늦은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었다. 대공스님은 천일기도 중이라 했고 이제 칠백일쯤 지났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도량을 찾아보았지만 법흥사 도량이 자신에게 꼭 맞다고 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삼천일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튿날 새벽기도때 그의 기도 모습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목탁을 치고 정근만 하는 게 아니라 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었어 했다. 매일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였던지 이제는 별로 힘들지 않다고 했다. 기도만 하는 것도 힘들텐데 절까지 하며 사분정근을 하니 그 근성이 놀라울 뿐이었다. 법흥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기도시간 짧잠이 시간을 내어 산행을 즐겼다.

이제는 말이 필요없는 산과의 대화시간이었



지만 서로의 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제 내린 비로 송이가 많았으며 씨익 웃으며 이단스님, 하산길의 허기를 송이버섯으로 채우다가 년즈시 강원예 가 공부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더니 부처님 법이 다 한가지로 통하는데 어디서 공부할들 대수냐고 말한다.

자신은 늦깎이라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기도로 대신하겠다고 자신의 공부까지 더해 달라며 너털웃음을 짓고는 휘이 휘이 등방자락을 흔들리며 저만치 앞서가는 그의 등이 무척 커 보였을 때 내 눈의 착각이었을까?

송이버섯 몇 송이를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싸서 길 가다 먹으려며 주고는 환한 웃음으로 배웅해 주던 대공스님을 어제 본 듯 한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지금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어느 곳 어느 도량에서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한 생각을 쉬어 볼 현듯 길 떠나 보면 언제처럼 우연히 만날 수 있으리라. 그때를 대비하여 차 한 통을 준비해 두어야겠다.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실천없는 깨달음 허무한 이념”

“출·재가 막론 평생공부 해야”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찰은 대부분 유치원과 보육원을 갖고 있어요. 또 일본 국민의 90%는 조상의 유골을 사찰에 모십니다. 조상님과 자녀들이 사찰과 인연을 맺다보니 자연스럽게 온가족이 불자가 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불교가 되어 있지요. 사찰에 유골을 안치한 것이 벌써 400여년전부터이니 이런 전통은 뿌리가 깊어요. 물론 일본 사찰의 스님들은 대부분 부자지간으로 이어져 청년회 회원들도 스님들이 많아요. 대부분 비구 스님이 아니지만 이런 점은 본받을 만하지요.

일부 불교의 수행전통은 한국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일본에는 5,000여개의 입제종 사찰이 있으며, 1만5천여개의 조동종 사찰이 있습니다. 나머지 500여개 사찰은 황벽종 사찰입니다. 입제종 사찰은 한국처럼 간화선을 공부

불교가 국내·외 불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의 실천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후 깨침의 내용을 법문과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았었다면 과연 오늘날 불교가 살아 있을까요. 실천없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아무런 자비심도 발하지 못하는 공허한 관념 속의 깨달음일 뿐입니다. 남자에게 깨침의 계기가 되는 주장자만이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세 번 두드리는 방망이가 중생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스님은 물론 재가불자의 사회적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가불자의 수행과 실천은 어떠해야 할까요.

▲선종에서 부처님은 '동막대기'라느니, 경전을 읽지 않고서도 자신의 본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鑑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 조진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 x 348mm (타로리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회기 수록)
- 장정: 전면 컬러, 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가격: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畵)들은 정엄한 불국도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모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단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함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12권 선암사 편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범주사 본말사 편
제8권 적지사 본말사 편(상)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9권 적지사 본말사 편(하)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10권 원경사 본말사 편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기 200질 인정보급
기간: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